

C_M_019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① 개요

눈미 양씨아미본풀이는 조선읍 와산리 양씨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씨아미는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나, 오라비의 반대로 끝내 심방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되고, 죽은 뒤에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

② 내용

옛날 눈미 와산 양씨 집안은 천하거부로 살았는데, 아들 삼형제, 딸 하나를 자식으로 두었다. 딸 양씨아미는 어려서부터 심방을 흉내내기 시작하였다. 여덟 살 때 당새미에 물 길러 가다 허벅장단을 치는 바람에 허벅을 깨뜨려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과 양태 짜러 갈 때도 심방 노래만 불렀다.

열다섯에는 어머니가 죽어 전새남굿을 하는데, 아기씨는 방안에서 더 큰 굿을 하였다. 심방이 굿을 마치고 집을 나서자 아기씨가 그 일행을 쫓아 나섰다. 심방이 아기씨를 만류하자 아기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중을 돌아다니며 굿하는 시늉을 하였다. 세 오라비는 아기씨를 찾아다니다가 아기씨가 굿을 하면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다. 큰오라비는 아기씨를 데려다 방안에 가두어 버렸다.

양씨아미는 말라가도 큰오라비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둘째와 셋째 오라비는 문구명으로 물을 주었다. 양씨아미가 스무한 살 되던 해 큰오라비가 개고기를 먹게 하였으나, 아기씨는 날핏내가 나서 먹지 못하고 죽었다. 큰오라비는 아기씨 시신을 대충 묻고 말았으나, 둘째와 셋째 오라비는 형님 몰래 봉분을 갖추어 마련하고 서천꽃밭으로 가라고 축원해 주었다.

양씨아미가 서천꽃밭에 가서 물을 주니 꽃이 시들어 이 세상으로 내쳐졌다. 아기씨는 전새남 받으러 내리는 고전적 하르바님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라고 간청하였다. 고전적 하르바님은 아기씨를 데리고 전새남을 받으러 갔다. 양씨아미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사

람이 없어. 둘째 오라비의 딸아기를 미치게 하고 그 아이의 입을 빌어 ‘큰오라비 자손은 망하게 하고 둘째와 셋째 오라비의 자손은 부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리 하여 둘째와 셋째 오라비 자손들이 아기씨의 원정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③ 특징

여성으로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나 집안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조상신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남성으로 같은 운명을 타고 난 경우에는 대체로 뜻을 이루거나 설령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고도 조상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예사이다.

④ 핵심어

당새미, 허벅장단, 전새남굿, 개고기, 날핏내, 고전적, 서천꽃밭, 양씨아미, 와산리

⑤ 원전 서지사항

눈미 양씨아미본풀이(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⑥ 관련 자료